

같이하는 7일 글쓰기📖 챌린지1기 글 모음집
in 동탄 독서 놀이터

(2.13 ~ 2.19)

글쓴 사람들📝

권경하, 김준현, 달, 량, 빵과자, 쭈, 안소라, 유지은, 이대현, 하건우

첫날. 소설

하건우 / 2.13 Day 1 / 주제 : 소설

[소설을 쓰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 한 조각]

“소설 쓰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흔히 말도 안 되는 일을 상상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기 혼자만 편한 식대로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또는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누군가에게 해주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이 표현을 쓰면 ‘소설’이란 장르에 왠지 미안해지곤 합니다.

우리가 보는 소설은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은 맞습니다만, 꼭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때로는 우리 삶에서 있음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죠. 소설가 김영하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에 이입하며 하나의 연습을 하게 된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미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고요.

김영하 작가의 관점을 가져와 덧붙여본다면, 소설이란 오히려 넓게 해석해서 ‘남의 이야기’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왜 듣나요? 내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 기쁨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삶을 현명하게 사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소설’이란 장르에 오명을 씌우지 말아봐요. “소설 쓰냐?”란 말로 상상력을 가로막지 말기를. 우리 인생을 적극적으로 상상하며, ‘소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이영신 / 2.13 Day 1 / 주제 : 소설

나는 울랄라세션의 love fiction이라는 노래를 좋아한다. 이곡에서 “이제야 말하는데 널 만난건 맹세코 절대로 우연이 아니야 이제야 고백하는데 니가 나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내 여자였어”라는 가사가 있는데 들을 때마다 흥얼거리게 되고 기분이 좋아진다.

소설의 특징은, 결과가 정해져있다는 것. 그리고 재미있는 소설은 결과를 알고 봐도 전개 하나하나가 재미있다는 것.

지난번에 문득, 인간의 삶이 소설 같다는 생각을 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은 아주 오래전 우주가 대폭발 했을 때 이미 정해졌고, 인간은 물리학

법칙에 따라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건 어떤 삶을 그려가건 그건 이미 정해진 결과라는 것.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애뜻한건 소설을 읽는 이유와 같다. 소설의 흥미로운 전개에 감탄하며 따라가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길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피 가는 것과 같다. 노래의 가사처럼 내 삶을 만난건, 나에게 소중한 당신을 만난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빵과자 / **2/13 D1** / 주제 : 소설

[장편 소설에 대한 뻔한 클리셰 대입]

내 인생이 소설이라면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기.승.전.결,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어디일까?!

잠시 쉬어가는 삶의 여유라 전개라 할까, 전진을 멈추었기 때문에 위기라 할까, 아니면 기어코 내 희망대로 잘될 수 밖에 없을테니 지금을 절정이라고 할까?! 과연 이 소설은 단 한 번의 흐름으로 끝나는 것인가?! 중요한 건 지금이나 지금이 무엇인지는 지나봐야 선명해 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단 한권의 소설이 아닌 사람이기에 지금이 전개이든 위기이든 절정이든, 비록 결말이든 기회는 또 있다. 또 소설은 쓰여질 것이고 또 사건은 일어날 것이다.

다만, 최종 엔딩까지 생각하기에는 아직 너무 젊으니, 지금 권은 비교적 짧은 해피엔딩이길 바란다.

김준현 / **2.13 Day 1** / 주제 : 소설

소설을 읽기 전 항상 그 작가의 일생의 궤적을 본다.

작가의 삶에서 소설의 많은 부분이 보이고 또 아는만큼 보여서 소설을 이해하는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의 삶, 그의 가정환경, 당시 역사와 사회상, 그당시 유행했던 다른 소설등을 보면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작품에서 작가의 삶과 소설의 전개양상이 비슷한 것을 보고 다수의 소설이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의 과장을 보태 잘 편집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래서 가끔 다양한 주제를 끊임없이 내는 작가는 신기하다. 그는 얼마나 많은 input으로 무장되어 있었을까? 얼마나 관심분야가 넓고 방대할까? 나는 얼마나 한정적인 주제로만 글을 쓰지 않을까? 반문해본다.

그리고 소설의 재미난 특징은 소설의 첫문장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까지 결정짓는 구조가 있다.
그래서 좋은 소설은 첫문장이 강렬하고 그 문장의 강렬함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예를 들면 이방인의 첫문장 "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확실히 않군 " 이란 문장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어머니의 죽음조차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끝맺는다.

나도 인생의 강렬한 한문장이 있고, 그 한 문장으로 인생을 힘있게 이끌어 나갈 구절을 오늘도 찾아본다.

쭈 / 2.13 Day 1 / 주제 : 소설

소설의 초고를 작성한다. 내가 정해놓은 개략적인 줄거리에 따른 큰 흐름은 정해져 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생각해놓았다가 되고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물줄기가 흘러가는 식으로 이야기의 큰 흐름을 변화시키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다만 큰 물줄기에 합류하는 작은 물줄기들라던지 물에 사는 생명체들 합류점인 강 하구의 이야기를 넣는 등의 변주는 가변적이다. 큰 흐름 안에 있는 일상다반사 이야기는 다채로우며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무엇하나가 바뀔다고 해도 크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기에 발을 동동 구를 필요가 없다.

권경하 / 2.13 Day 1 / 주제: 소설

20대 때는 책을 즐길 줄을 모르니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잡지 등 정보 습득 위주의 서적만 기웃거렸었다. 그때는 왜 사람들이 소설을 읽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왜 소설을 즐기지 못했을까? 국어시간에 답을 찾도록 강요받았던 것에 대한 반감도 무시 못하겠지만, 그 중 가장 큰 건 그땐 내 자신의 감정이 남의 감정까지 이해해볼 만큼 여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시대와 삶의 방식 등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가
무지했다. 당연히 타인의 감정을 따라가기란 더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소설을 즐길 수 있다는 건 사실 시간 향유로 치부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다방면에 대한 지식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즐기기 어려운 게 소설읽기인 것 같다.
지금은 반대로 소설이 더 좋다. 앞서 말한 스킬들이 조금은
갖추어져서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소설을 읽을 때의 속도감이
좋다.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그 속도가 좋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속에서 나 혼자 미련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한 문장 한 문장
바뀌는 장면들과 감정들을 따라가며 '공감'하고, '질문'하고, 유추'하며 내
삶에 접목시킨다. 그렇게 내 나름의 삶의 진리를 찾아가는 느리지만
끝났을 때의 여운과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더 맞는
길을 가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이대현 / 2.13 / 주제 : 소설

소설은 하나의 세계이다. 종교인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
일신교들에선 조물주가 이 세계를 창조했듯이 소설가는 소설속에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한다. 우리가 과학으로 알 수 있는 세계는 이 우주 단
하나지만 소설을 통해 여러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세계 안에선 우리
우주와 상관없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명작을 쓰는 소설가들은 굉장한 경지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된다.
누군가는 고작 단 하나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한분야의 일을 평생
알아내려고 애쓰는 반면 대작가들은 수많은 세계를 창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
보다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소설을 잘 읽지 않고 있다. 내가 읽는 책의 대부분은
현실세계를 설명하는 교양서이다. 너무 하나의 세계만을 살아가고
있는건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 밤을 보낸다.

둘째날. 친구

안소라/ **2.13 Day1**/ 주제:에세이
(주제변경 1회권 사용합니다^^)

[글쓰기에 용기를 심어준 에세이]

사실 에세이(Essay)라는 장르는, 일기나 자기소개서 같은 글부터 학술적인 느낌이 강한 논문까지도 통칭하는 말인데, 최근에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글을 에세이라고 부른다. 요즘에는 독립출판이나 전자책을 내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면서 일반인들도 작가가 될 수 있는 장벽이 많이 낮아졌고, 그만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에세이 책들이 이전에 비해 즐비하게 되었다.

최근에 머릿속이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 책만큼은 쉽게 읽을 요량으로 에세이책을 몇 권 몰아서 보게 되었다. 시작은 가볍게 책을 읽는 것이었는데, 평범한 듯, 참신한 듯한 소재들을 작가만의 편안한 문체로 써 내려간 것을 읽다 보니, 문득 글 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졌다. 나도 그들처럼 글을 써보고 싶다는 마음, 그들처럼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욕심도 생겨났다.

가볍게 시작한 에세이도서의 릴레이가 글쓰기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글을 쓸 수 있는 용기’라는 뜻밖의 소득을 얻었다. 아직 누군가에게 보여지기엔 많이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나만의 글을 생산해내고, 글 쓰는 감각을 키워가면서 앞으로 더 나아질 나의 글이 기대된다.

이영신 / **2.14 Day 2** / 주제 : 친구

20대 시절, 참 많은 친구들을 만났다. 아직까지 내 곁에 남아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머물다 지나간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 한때는 떠나가는 인연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다.

‘시절인연’이라는 말이 있다. 원래는 불교용어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말의 직관으로 해석된 ‘그 시절의 인연들’이라는 뜻이 좋다. 그 시절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나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매일매일 바뀌고 ‘너’ 또한 변해간다. 그럼에도 그 시절 함께 했기 때문에 나는 성장할 수 있었다. 우연히 마주친 고마운 삶의 인연들이 나의 단단하고 유연한 내면을 만들어주었다.

오늘 밤에는 고마운 마음을 담아 지나간 사람들의 안부를 묻는다.

하건우 / 2.14 Day 2 / 주제어 : 친구

[좋고, 편하고, 그리고 이제는 밋밋한]

친구라는 말처럼 편리한 땀빵이 있을까 싶다. 남에게 상처주기 싫다면 그를 친구로 부르면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너와 나를 규정지어주는 안전한 단어. 너에게 나를 설명하려면, 나에게 너를 설명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누군지 설명이 필요하다. 가장 쉬운 설명이 친구이다. 있어도 그만이지만, 없으면 좀 불안한 우리들의 이름표.

누군가와 관계를 만들고 싶을 때도, 그와 가까워지는 방법 역시 친구라는 단어에 있다. "우리 친구하자"라는 말은 동성 간에는 물론이고, 남녀 간에, 혹은 노소 간에도 쓸 수 있는 말이 되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관계들에서, 하지만 여기에 더해 너에게 반대되지도 않는다는 의미를 전달하는데는 최적이다. 친구니까, 친구여서 우리는 좋다.

하지만 때로는 친구라는 울타리를 걷어야 한다. 누군가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말이다. 서로 볼 수 있지만 차 유리창으로 보이지 않는 듯한 벽을 허물고 싶은 때가 온다. 친구라는 단어는 점점 밋밋해지고 안일해진다. "친구라는 단어는 너를 담기에는 너무 부족하니까."

02.14.달.[친구]

친구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큰 공감 능력 때문에 얕고 넓은 관계보다는 좁고 깊은 관계의 찐친구가 많다.

얕고 넓은 친구관계는 무엇일까?

맞은편 피아노 학원 원장님은 나와 친구일까?, 자주 보는 도서관 사서 선생님께서 음료수를 건네주신다. 나와 친구일까?, 수년째 제자인 학생과 나는 친구일까?...

아리송한 관계의 사람들도 친구라고, 친구의 범위를 넓혀보고자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 다정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찐친이라 부를 수 있는 내 친구들이 더 소중한해진다.

김준현 / **2.14 Day 2** / 주제 : 친구

친구로 주제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주제가 있다.

나를 아는데 친구가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이다. 어떤이는 말한다. 너를 알고 싶으면 너가 제일 자주 만나는 친구 5명을 생각해보라. 그들의 평균이 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문장은 생각해볼만한 문제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리에서 속해있는것일까?
그 무리에 속해있어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일까?
고민해본다.

어떤 책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친구들을 자기 주변에 채우라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점에서 '뱀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처럼 무리에 결국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친구는 가려 사귀는 것이 좋을까? 책이라는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모임에서 나는 자연스레 책을 읽을 것이지만 혹 다양한 취미를 가진 친구를 두루 사귀는게 더 좋지 않을까? 등도 생각해본다.

친구란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에 이런 주제를 끄적여봅니다.

빵과자 / 0214 D2 / 친구

[나와 그녀의 25년]

중학교 2학년 때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예쁜 민간인.

중2병 가득했던 시기를 함께했고 아주 오래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갔던 여행에 동행했고 최근의 퇴사여행에도 동행하며 여행 스타일로 참 많이 다르구나를 다시금 깨닫는 동시에 이질적인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익숙한 존재.

우리는 욕 한 번 한적 없었고 싸움도 아주 아주 간간히 조용히 하며 만나면 대부분 밥과 차의 뻘한 싸이클이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오래동안 우정을 나누는 관계.

그녀는 날 닮은 남편을 만나서 참 많이 비슷하다는 우스갯소리를 하고, 나느 그녀에게 내 덕분에 남편에 대한 예습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색을 내지.

마음엔 아직 소녀가 있는 어른이 된 내 친구와 나, 우리.

권경하 / 2.14 Day 2 / 주제: 친구

교우관계가 내 세상의 전부였던 때도 있었고, 애인이, 직장상사와 동료가 내 세상의 전부였던 때도 있었다. 인간관계가 가져다 주는 여러 기쁨과 아픔을 축적해가다 보니 조금씩 관계에 대한 강박도 줄어든 것 같다. 그래서일까, 내가 정의하는 친구는 그저 근래에 나와 수다 좀 떨어본 사이이면 그만이다.

굳이 분류해서 따지자면, 얼마 뒤면 20 년지기 친구가 되어가는 고등학교 친구 셋에 대해서는 어떨까? 기본적인 감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아쉬움을 너머 그리움이 생긴다는 차이가 조금 있을 뿐. 일정 시기 후에 돌아올 인연인 것을 나는 안다.

쭈 / 2.14 Day 2 / 주제 : 친구

친구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다. 좋은 것을 혼자가 아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혼자 보는 멋진 풍경이나 혼자 먹는 산해진미보다 친구와 함께 하는 일상적인 풍경과 김밥과 떡볶이가 더 소중하다. 지금은 내 곁에 없는 한 친구가 떠오른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줘서 나를 많이 살피줘서 고마웠다. 그 친구가 내 곁에 있을 땐 몰랐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과 상대를 살피주는 것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너무 친해져서 함께 많은 시간을 공유하게 되면 점점 감사함을 잊게 되는 것 같다. 상대방을 생각하며 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 곁에 있는 친구들로 인해 웃고 떠들고 깔깔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감사하다. 내가 있음으로 인해 내 친구들도 재미있길 바란다. 내 친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 나를 떠올리며 연락을 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슬플 때 주저 말고 나에게 연락을 주었으면 좋겠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내 친구들이 나의 존재로 인해 기쁜 일에 더 기뻐할 수 있고 슬플 때는 조금 덜 슬프고 행복할 때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대현 / 2.14 / 주제어 : 친구

오늘은 이과적 사고에 시동을 걸어서 글을 써볼까 한다.
친구의 사전적 정의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 이다. 이 것을 정량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가깝게 지내는 정도 N 과 사귄 기간 T 가 곱해지면 된다.
그럼 친구력 F 는 $N * T = F$ 인것이다.

그럼 N 은 어떻게 측정될까? 자주 만나는 빈도 fr 에 그 친구와의 깊이 de 를 곱하면 된다. 여기서 문제는 de 이다. 이것을 측정할 방법은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점이 친구력 F 를 객관적일 수 없게 만든다.

방정식은 이제 넣어두고 문과 자아의 반격을 시작해보겠다.

친구는 알고지낸 기간이 중요하지만 친구 A 를 처음 만났을 때의 나와 10년 후의 나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10년 후에 가치관이 바뀌고나서 만난 친구 B 와 지금은 더 잘맞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다.

결국 어릴적 알던 친구는 순수했던 마음으로 알게된 친구지만 나의 완성된 가치관에 적합한 친구라기 보단 가치관이 완성되기 까지 과정에서의 친구인 것이다.
그리고 완성된 가치관에 적합한 친구가 정서적으로 잘 맞을 수 밖에 없다.

친구라는 말의 서글픈점은 순수했던 시절부터 만나서 길게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들과 언젠가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계속 바뀔 수 있지만 구체적인 가치관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기준이 있다. 바로 수용하는 자세와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이다. 이런 친구들 이라면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긴해도 상호보완적인 존재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한쪽만 성장하는 불균형은 아쉬움을 불러오지만 방향이 달라도 동반성장하는 친구는 그 누구보다 든든할 것이다.

안소라/2.14. Day2/ 주제: 친구

같은 반이어서 친해졌던가? 아니면 옆자리여서? 어떻게 친해졌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오래된 친구가 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모든 친구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와 회사를 다니면서 그 친구와 나는 서로 색이 전혀 다른 집단 안에서 살아왔다. 물리적으로 멀어지고 다른 환경에서 살면서 서로의 관심사와 가치관의 간극이 커져가는 것을 느끼며 가끔 이해받지 못함에 서운할 때도 있었다. 각별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가끔 서로에게 던지는 말들이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더 큰 힘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친구사이인데는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순간이 몇번이나 찾아왔을까? 오래된 친구일수록 시간이 갈 수록, 함께 한 추억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더 필요해진다.

셋째날. 여행

02.15 / 달 / 여행

[여행은 도피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도, 여행을 하는 중에도 몰랐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알 수 있다. “아 현실이다...” 동시에 ‘여행은 도피다’라는 말에 공감한 적이 있다.

30대가 된 후에는 (해외여행으로만 느낄 수 있었던) 도피가 아무 때나 가능하다.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2시간, 뮤지컬이나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 그림을 그리는 시간, 수영을 하는 한 시간,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숨을 내쉬는 그 1분 남짓,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요즘의 나에게는 몰입과 명상이 여행(=도피)의 역할을 해준다. 미래의 나는 또 (해외)여행에 목을 맬지라도 ㅎㅎ

안소라/2.15 Day3/ 주제:여행

친구, 가족들과도 여행을 많이 다녔지만 난 혼자 하는 여행도 참 좋아한다. 누군가는 혼자 여행을 가면 심심하고 덜 재밌지 않냐고 하지만, 혼자 여행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기꺼이 내 스케줄만을 조정해서 마음먹은 대로 훌쩍 떠날 때 얻는 쾌감. 여행지에서 나에 대해 모르는 낯선 사람과 예기치 못한 짧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의 신선함. 갑작스러운 변수로 인한 단독적인 일정 변경에서 느끼는 자유로움도 좋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더 머무르고 싶은 곳에 얼마든지 있으면서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억에 남는 좋은 여행에서 느꼈던 나의 감정들을 알게 되니, 지금은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보고 싶었던 근교 카페에서 몇 시간 보내고 오는 것만으로도 짧은 여행의 기분을 느낀다.

다음번엔 나를 데리고 어디로 여행을 갈까?

빵과자 / 0215 D3 / 여행

[여행의 맛]

일상의 쓴 맛을 보면

여행의 단 맛을 보고싶어

준비의 신 맛을 거쳐 떠나게 된다.

여행은 단 맛이기도 매운 맛이기도 하지만, 돌아올 때의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맛보다는 훨씬 훌륭하다.

일상의 복귀 후 짠 맛을 볼 때 마다 떠올리는 여행은, 사고의 통각을 단 맛으로 느끼게 해준다

나는 여행이 가고 싶은걸까, 아니면 여행이라는 행위가 하고 싶은 걸까?!

여행은 일상의 달콤 씹싸름한 초콜릿같은 것,,, 끝없는 등산의 코바 같은 것,,, 펍펍한 삶의 계란의 사이다 같은 것,,, 영혼의 통각을 깨워주는 쓰다보니 또 가고싶은 것!

2/15 수요일, 유지은, 키워드 : 여행

[일상에서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는 방법]

새해 들어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한가지 늘었다. 그건 바로 거점 사무실로 출근하기 :)올해부터 동탄에 새로 생겼고, 73번을 타고 20분만에 도착한다. 평소 출근하는 시간대보다 늦은 시간대에 마을버스에 타고 있는 것부터가 새롭다. 평일 이 시간에 마을버스에 타고 있다니! 한미약품 부근에서 마구마구 달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것도 재밌다. 점심시간에는 메뉴가 정해진 사내식당에서 먹는게 아니라, 내가 그날 그시간에 딱 먹고싶은 걸 고른다. 일하는 시간에는 타인에 의해 방해받는 일이 적고, 특히 청각적으로 조용해서 안정된 상태를 느낄 수 있다.

써놓고보니 특별할 건 없다. 결과적으로는 일하는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다. 근데 왜 여행하는 기분이 들까? 출퇴근길의 풍경과 먹고 마실 수 있는 메뉴와 나를 둘러싼 소음의 데시벨이 다르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그 차이를 충분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일상에서 여행하는

기분을 느끼려면, 작은 변화에도 촉수를 세워 감지하고 그 변화를 만끽하는 태도를 갖추면 되지 않을까?
마침 오늘 요가 수업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과 닿아있다.
“몸을 무리해서 움직이지 말고,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지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김준현 / 2.15 Day 3 / 주제 : 여행

일상의 권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일상을 환기시켜야한다. 그 환기의 일환이 여행이 아닐까?
우리는 매번 낯선 경험을 해야한다. 독서도 여행도 그런 방법들이다.
이런 환기를 시킬수 있는 방안은 다채로울수록 좋고, 그 방안들을 고민해봐야한다. 안하던 음악, 미술, 운동, 산책로, 모임등을 다채롭게 해야하지만 환기까지만 해야할지도 모른다.

조승연의 탐구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앤서니 보테인을 다룬적이 있다.
그는 매번 세계각지를 여행하는 음식평론가이다. 그는 매번 여행을 떠나며 사니 여행이 일상이 되버리고 그것이 권태로 자신에게 다가온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일상이 있기에 여행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영신 / 2.15 Day 3 / 주제 : 여행 [여행의 이유]

얼마 전 아빠와 남도여행을 다녀왔다. 전라남도를 발길 닿는대로 자유롭게 돌아 다녔고 여러 여행지를 거친 후 우리는 전남 진도에 도착했다. 진도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아스라히 사라지는 노을도 봤다. 이로도 충분히 행복한 여행이었지만 우리는 가야할 곳이 남아있었다.

아빠는 여행 전 나에게 전라남도의 어느 곳을 가고 싶냐고 물었다. 나는 팽목항을 가고 싶다고 했다. 이유는 딱히 없었다. 그냥 언젠가는 내 눈으로 그곳의 바다를 보고 싶었다.

팽목항으로 향하는 늦은 밤, 나는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는 팽목항에 몇번 갔었잖아. 근데 왜 계속 가는거야?” 그러자 아빠는 나즈막히 “빛진 마음 갇으러”라고 말했다. 나는 아빠의 짧은 그 대답이 좋았다. 그 말이 좋아서 몇번이고 곱씹었다.

달이 빛났고 바다는 잠잠했다. 우리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어두운 바다를 걷고 좁지만 따듯한 세월호 팽목 기억관으로 들어갔다. 아빠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다. 아주 작게, 미안하다고 이야기 했다.

나는 아이들의 사진을 마주보는 아빠의 뒷모습에서 따스한 빛을 보았다. 깊은 바다를 너르게 살피는 달처럼 잔잔히 따듯했다. 아빠의 뒷모습을 발견한 것 만으로도 이번 여행의 이유는 충분했다. 빛진 마음을 조금이나마 갇았다.

권경하 / 2.15 Day 3 / 주제: 여행

오지랖같고, 내 앞가림이나 잘하자는 생각에 타인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에 인색했던 것 같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도 조금 훈수가 되어보려고 한다. 내 자신이 일상에서도 여행지에서도 작은 인사 정도는 먼저 건넬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여행 중에 우연히 시작된 대화 속에서 나는 그저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 재미있고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나는 너무 쉽사리 금사빠가 되었다. 그렇듯 나는 그 어떤 여행의 잔상보다도 사람에 대한 잔상이 가장 오래, 가장 생생하게 남는 편인 것 같다. 문제는 그 우연한 대화의 시작은 항상 남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었나 반성한다.

그들이 나를 기억이나 할진 몰라도 나는 앞으로도 여지껏 줄곧 그래왔던 것처럼, 그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짝사랑하며 지낼 것이다.

쭈 / 2.15 Day 3 / 주제 : 여행

여행가고 싶다!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 여행을 갈망하게 되는 것 같다. 일상이 피곤해서인지 그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둘 다에 해당되기 때문인지는 문득 여행이 가고 싶어졌다. 여행지를 정하고 어디를 갈 지 무엇을 먹을 지 생각하며 설렜다. 인생은 여행이라는데

요즈음의 내 하루 하루는 그저 챗바퀴처럼 돌고 있는 것 같다. 새로운 해가 뜨는 매일 매일이 새로운 날 새로운 여행의 시작인데 무엇을 할 지 상상하며 상상했던 것들을 실제로 하며 설렘일은 많지 않다. 요즈음의 나는 스트레스로 인해 의욕 수준이 낮아진 상태이다. 내 몸과 마음을 깨우기 위해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릴 없이 걸으며 머릿속을 비우는 것은 정말이지 기분 좋은 일이다. 뚝뚝뚝 바지런히 걷다 보면 지칠 때가 되었음에도 배도 고프지 않고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이 있다. 걷기는 지친 마음을 환기시켜준다. 햇살과 바람을 한껏 느끼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좋은 기운을 충전해서 와야겠다. 여행은 나그네가 거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한다. 가본 적 없는 도시에서 거닐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감탄하고 내가 살아 있음을 오롯이 느끼다 와야겠다. 일상에서도 여행에서 느끼는 기분들을时时 때때로 느끼며 살 수 있길 바란다.

하건우 / **2.16 Day 3** / 주제 : 여행

[여행이 필요 없는 사람의 마음으로]

여행은 피해서가는 것인 줄 알았다. 지친 일상으로부터의 도피, 내가 싫어하는 일들로부터의 도피, 웬수들로부터의 도피 등등... 여행은 탈출과 동일어였고, 그런 의미에서 구원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이는 후폭풍을 야기했다. 여행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면, 무력감과 두려움의 엄습, 생기 없음, 좌절 등 여러 반작용들이 따라오는 것이었다. 여행과 여행이 아닌 것의 2분법으로 나뉘는 삶. 이런 삶이 주변에 흔해서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꿨다. 여행을 일상적으로 하고 싶다는 말보다는, 일상을 여행하듯 살자고 말이다. 하루, 하루가 똑같아보여도 충분히 다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매일은 절대 똑같지 않다. 창조의 관점에서 하루를 바라보면, 일상이 여행이 된다.

여행을 갈때, 도피하는 심리로 가는 것은 이제 끝이다. 여행은 정말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문화, 진정한 휴식을 위해 가는 것으로 할 것이다. 여행을 기다리지 않아도, 나는 내 일상에 행복을 느끼며 살 것이다.

넷째날. 사람

02.16 / 달 / [자유주제 변경 : 감정]

나에게 사람에 대한 정의는 없다. 나를 또는 타인을 정의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주제 [감정]입니다.

- ‘감정 표현은 그저 부정확한 아무 말이며, 재미있는 사후 논평이다.’
- ‘감정들은 신체적인 상태와 연관되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거나 심장이 쿵쾅거리는 신체적인 상태를 감정 자체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 ‘내면의 어떤 정신적 기반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지(=감정)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실행, 행동) 봐야 할 것이다.’

위 책[생각한다는 착각]의 저자는 말한다. “내가 내 기분을 해석해야(설명) 한다는 주장은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 그럼에도 인간이라는 좋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감정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
감정과 경험적 스토리가 없는 주장이나 지식은 힘이 없다.

쭈 / 2.16 Day 3 / 주제 : 사람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의식주의 기반을 탄탄히 다진 후에 정신적인 만족감을 위해 추가적인 요소들이 필요하다. 정신적인 부분은 사람의 육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부분은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만으로도 건강한 육체를 병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그저 놀라운 뿐이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빵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적으로 사람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중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내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좋은 친구와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만족할 만한 소설 속 이야기 일 것 같다. 사람은 참 신기하고 이상하고 멋진 동물이다. 새로운 나와 마주칠 때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놀라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내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김준현 / 2.16 Day 4 / 주제 : 사람

사람인가, 상황인가라는 책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보다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한다.

좋은 예시로 맹자의 맹모삼천의 이야기를 들수있다. 첫번째 터는 묘지였더니 장례식 흥내를 내고 묘지를 파는 장난을 하고, 2번째 터는 시장부근이라 시장의 사고파는 모습을 흥내내며 놀았고, 마지막으로 서당근처의 터를 잡으니 예의범절을 차리고 책을 읽는 흥내를 내며 지낸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바꾸는 것보다 상황을 바꾸는데 힘을 쓴다면 우리는 더 쉽게 바뀔 것이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할 것은 사람보다 그 사람의 환경을 생각해보아야 하고, 그 환경에서 그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는 것이 그사람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유래된 것이 스키너의 심리상자이다. 스키너는 단순히 인간행동을 단순히 자극 - 반응의 관계로 설명하려 했던 사람으로 그는 인간에게 올바른 환경만 계속해서 주입할 수 있다면 그는 올바른 행동만 할 것이며, 올바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빵과자 / 0216 D4 / 사람

[사람의 정의에 대한 개요]

1. 사전적 정의

- 1)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Ex ; 만물의 영장)
- 2) 어떤 지역이나 시기에 태어나거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자 (서울 사람)
- 3) 일정한 자격이나 품격 등을 갖춘 이 (사람을 기르다)

2. 나의 정의

- 1) 생각을 해야하나 일부는 열이 빠져있고 일부는 같지도 않은 생각을 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나 나쁜데 쓰는 이도 많으며 사회를 이루어 사나 사회를 파괴하는 이도 있는 짐승들
- 2) 어떤 지역이나 시기에 태어나 살고 있거나 살았던 자들이나, 지역을 초월하고 순간을 영원처럼 살고싶어 행복과 사랑을 꿈꾸는 자들
- 3)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 품격을 갖추이를 낮추어 보거나 해를 끼침에도 더불어 가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가 있어 아직은 살만한 세상임을 느끼게 해주는 이들

02.17 / 유지은 / [모른다는걸 무기로 삼는 사람과 부끄러움으로 삼는 사람]

‘모르는 걸 부끄러워 마라‘ 라는 말을 일상에서 쓰는 경우가 있다. 나도 공감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그 생각을 바꾸었다. 모르는 건 부끄러워해야 발전이 있다. 모르는 걸 부끄러워 하지않으면 계속 모르는 상태로 남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건 아주 최근의 일이다. 조직 내에서 모른다는 걸 무기로 삼아, 일을 떠넘기는 파트장을 보았다. 모르면 일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해도 모자란데, 모르기때문에 나는 할 수 없고 너네가 하라는 당당한 태도에서 끔찍함을 느꼈다. 신입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보직자는 모르는 것이 직무유기다. 그리고 이런 태도의 본질은,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에서 온다고 생각한다.

저 태도를 배우지 않기 위해, 물들지 않기 위해 나는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간직할 것이다. 모르는걸 변명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모르는 걸 배우는데에 에너지를 쓸 것이다.

다섯째날. 맛집

02.17 / 달 / [동네맛집]



박웅현작가의 글 ‘인간에게는 공유의 본능이 있다.’

그래서! 동탄 거주 15년차! 저의 카페 맛집 리스트를 공유합니다. (예쁜 카페보다 맛있는 카페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 아이킨예(1동탄,2동탄 / 퍼스널브랜드): 동탄에서 제일 맛있는 아인슈페너, 딸기라떼, 저는 기본 아메리카노까지도! 맛있더라고요.

🍞 라크드미엘(호수뷰 베이커리카페): 뷰가 너무 좋아서 충청도 여행 온 기부니 뽀뽀, 맛있는 빵! 대부분 버터 듬뿍이라 겉바속촉+고소하고 맛있어요.

🍩 조각달과자점(시그니처 소금빵): 나만 알고 싶은 곳. 앱 예약 1분컷 솔드아웃, 오후에 매장 판매하셔서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구하기 힘들다쥬.

식당: 비피터, 해울, 해품당, 포레스트, 이가네양꼬치, 동탄 신라스테이
평일 브런치 뷔페 정도 생각나요.

이사 와서 2동탄에도 아이킨예 있는 걸 발견하고는, “대표님! 여기에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나누고 개업선물도 갑자기?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좋은 맛과 추억을 제공해주신 대표님들께서 돈 많이 버시고 오래오래
영업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은 개인의 취향이 가득하니 심심할때 찾아봐두셨다가 근처
가셨을때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쭈 / **2.17 Day 5** / 주제 : 맛집

맛집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음식이 맛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어야 한다. 인터넷 상에 높은 별점의 많은 후기를
얻게 되면 마침내 맛집으로 등극! 맛집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장사가 잘된다. 어떤 것이 맛있어요 좋아요 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것에 기대하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역할에 따른 기대를
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저 다수의 사람들에게 평가와 판단을 받고 그것들의 평균이 어떤
것의 점수가 되는 것이다. 평균은 높아야 하고 모집단은 유의미하게
많아야 한다. 맛집으로 또는 좋은 물건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살면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어떤 것에 대해 알아갈 때 우연에 기대기보다는 남들이 정해 평가 점수에
의존해 내 의사결정 단계를 단축시키는 행위가 주는 이점이 많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나만의 새로운 맛집을 찾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결정 단축 프로세스를 따라 결정을 내리곤 한다.
천만영화를 선택해서 보는 것과 같이 타인들의 잣대와 평가에 의존한다.
재미는 없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나는 주말이면 남들 다 가는
맛집에 간다. 비슷한 일상 속에서 비슷한 소비를 하며 살아간다. 나만의
맛집을 찾기 위해 가끔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해보면 우연찮게 마주친
맛있는 것으로 인해 인생이 조금 더 달달하고 재미있어지겠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유지은 / **Day5** / 자유주제 변경 [아이유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

올해 목표중 하나는 유애나 6기 가입이었고, 드디어 오늘 가입했다.
올해도 분명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할텐데, 올콘 + 그라운드석에
앉고야 말테다.

유애나 6기 가입 기념으로 아이유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를 적어보았다.
오늘의 픽은 코인, 이지금, 에필로그다.

1. 코인 : “세상이 원래 불공평해. so 더럽게 재미있지“ 라는 가사를 자주 떠올린다. 아이유는 어릴 때 대중의 공격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꼈을텐데, 그게 오히려 더럽게 재밌다고 썼다. 불공평한 상황조차도 여유롭게 인정하고, 결국 즐겨버리는 그 멋있음을 닮고 싶다.
 2. 이지금 : 지금 이순간을 예찬하는 봄 같은 노래. “있지 저런건 그저 자그만 돌맹이야. 빛이 나는 건 여기 있잖아“ 매순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욕 그만하고.
 3. 에필로그 : 내 장례식장에 틀기로 정했다. 난 아직 인생에 방향이 없는 사람 같은데, 일단 이 노래를 나침반 삼기로 했다. 특히 이 가사가 맘에 쏙 든다. “삶의 어느 지점에 우리가 함께였음이 여전히 자랑이 되는지”. 죽는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면 참 귀할 것 같다.
- 참고로 유애나 6기 모집은 2/26까지 라고 합니다~!

김준현 / 2.17 Day 5 / 주제 : 맛집

맛집에 대한 나의 생각은 공복이다. 최고의 조미료는 공복이고 최악의 조미료는 배부름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맛집은 배부를 때에도 맛있게 먹을수있는곳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사람마다 맛집의 기준이 맛이 될수도, 가격대비 가성비일수도, 분위기와 악세서리일수도, 직원들의 친절도가 맛집의 기준이 될수도있다. 또한, 손님의 숫자나 인스타그램에 많이 언급되는 횡수일수도 있다. 외국에는 미술랭이라는 기준표가 자신의 맛집에 기준이 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맛집의 기준이 남이 되는것과 자신이 되는것이 혹은, 자신의 기준이 명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장단점이 있을까 고민도 해봅니다.

안소라/ 2.17 day5/ 주제: 맛집

자취 5개월 차인 나에게, 요즘 가장 자주 가는 맛집은 나의 작은 주방이다. 하나 둘 늘어가는 요리도구와 소스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유튜브 선생님께 물어보고 레시피를 정리해 둔다. 쿠팡 친구한테 재료 배달도 부탁한다.
갖은 재료 양껏 넣고 내 입맛에 맞춰 나를 위한 음식을 준비한다. 배가 많이 고플 땐 1.5인분도 오케이다. 적당한 접시에 음식을 담고, 나름의 기념으로 사진도 한 장 찍어주고 배불리 먹고 나면 포만감과 함께 요리력+1, 자립심+1이다. 날이 갈수록 재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응용력도 +1!
금요일 저녁, 나는 오늘 야채듬뿍 야끼소바와 맥주한잔을 주문했다.

이대현 / 2.17 / 주제어 : 맛집

맛집이 뭔지 곰곰히 생각하다보니 '음식문화의 수수께끼' 라는 책이 생각난다. 이 책에 따르면 인류의 음식문화는 '높은 열량섭취'와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갈망하는 유전적원인 때문이라고 한다.

탄수화물의 단맛, 지방의 고소함을 맛있다고 느끼게 된 인간은 높은 열량섭취에 유리해졌고 고기의 감칠맛에 눈물을 흘리던 인류는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에 유리했다.
또한 나트륨은 인간의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이고 과거엔 나트륨을 구하는게 어려웠기 때문에 짠맛에 대한 욕망도 생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과거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보존식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보존식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건조, 염장, 발효 라는 3가지 방법이 쓰였다.
음식을 발효시키면 시큼한 맛이 나는데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발효식품은 다르다. 한국에서도 지방마다 차이가 있다.

결국 맛집이라는 것은 인간이 진화에 유리하도록 맛을 느끼게된 조합을 이리저리 잘 섞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맛있는 음식앞에선 나도 파블로프의 개처럼 침을 흘린다. 다들 맛집에서 즐거운 식사를 통해 행복한 한끼를 보내시길^^

빵과자 / 0217 D5 / 맛집

[가보정을 아시나요?!]

‘가보정’은 30년 이상된 수원의 명물 갈비집 입니다. 최근에 인기 TV 프로그램에도 나왔었지만, 별도의 미디어 출연/홍보가 필요 없는 경기/수원 사람들은 다 아는 네임드죠.

건물 한층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3층짜리 건물 2동과 3층짜리 주차건물을 가진 ‘가보정’은 이제 그냥 식당이 아니라 기업이 되었습니다. 한우 생갈비는 1인분(250g)에 97,000원으로 조금 비싼편이고 2명 따위의 예약은 받아주지 않으며 어떤 직원들은 불친절로 오인한 수준의 딱딱함을 갖고 있지만, 적당한 육즙과 부드러운 식감의 고기는 입안에서 녹아들고 명절용 갈비셋트도 판매하며 베테랑 웨이트리스를 담당직원으로 잘 만나면 특등의 고기굽는 스킬과 자주 먹는 반찬의 빠른 리필 센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보정을 많이 좋아하는데, 육식주의자인 저의 취향은 차치하고 많은 추억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생신 때는 수원 근처에 모여살던 2세대 자식들의 주도로 3세대 손자손녀들까지 모여 모두들 고기에 취했지만 우리 할머니는 그 집 고기보다 잡채를 유난히 좋아하셨습니다.

언제가부터 제 생일에는 가보정을 가는 것이 전통이 되었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가보정만 가면 직원들에게 기대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팁을 주는 내 사랑스러운 부모는 여전합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지난주엔 서울시민인 전직장 동료가 드디어 나의 홈그라운드인 수원으로 와서 가보정에서 20여만원의 호의와 베풀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수원시민인 탓으로 수원 부심이 잔뜩 남아있는 저는 그녀에게 가보정의 역사와 전통을 설명해주고 "옛날에는 더 반찬이 잘 나왔으나 요새는 퀄리티가 많이 떨어졌다"는 어른들의 평을 너스래로 들려주며 그녀의 미각을 만족시킬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가보정은 나에게 미각보다는 기억을 먼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억의 맛집 입니다.

PS. 필자는 가보정과 어떠한 상업적 관계가 아님을 밝힙니다.

(<http://www.kabojung.co.kr>)

이영신 / 2.17 Day5 / 주제 : 맛집

내가 다니는 직장에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맛집 공동체’가 있다. 나도 그렇지만 그들은 진정한 맛잘알들이다..

여행을 하기 전, 맛집 공동체에게 여행지를 공유하면 그곳의 맛집들을 짝 리스트업 해준다. 그들의 선택한 맛집엔 절대 실패란 없다.

우리의 맛집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맛 : 당연한거다.
2. 가성비 : 합당한 가격이어야 한다.
3. 시스템 : 맛만큼 중요한 기준이다. 맛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시키고 먹고 나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매끄러워야 한다.
4. 청결 : 깔끔해야 한다.

얼마전 맛잘알 동료들의 추천으로 과주 심학산 도토리국수집을 다녀왔다. 먹는 내내 감탄을 금치 못했다. 주차부터 웨이팅까지 하나도 걸리적 거리는게 없었고 회전율이 빠를 수 밖에 없는 직원분들의 서빙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는데도 청결했다. 그리고... 너무 맛있다... 흑...

맛잘알 동료들과 함께하는 맛집 공동체.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다.

하건우 / 2. 17 Day5 / 주제어 : 맛집

내가 갔던 곳이 맛집이었던 것을 몰랐을 때가 있었다. 나는 그 당시 맛을 찾아 헤매지 않았다. 그저 배가 고파서, 혹은 식사 때가 되어서 지나가다 자주 들르게 된 곳이었다. 맛을 따지지도 않았고, 그리 큰 감흥이나 불평이 없었다.

그래도 꾸준히 그곳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그곳을 맛집이라고 깨달은 계기가 왔다. 다른 지역에 놀러갔을 때, 같은 음식을 파는 다른 음식점에 갔던 때이다. 근데 그때 딱 내가 항상 가던 그 음식점이 오히려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그때야 맛이 더 살아났다. 평범한 듯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그곳 사장님만의 다른 결이

살아있었다. 가격에 비해서, 훌륭한 영양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도 생각이 났다.

나는 그곳이 맛집인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럴 상황과 때가 아니었던 것이다. 마음속 나는 이미 그곳을 끌려하고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음식점에 자주 가는 것이 팬스레 망설여지기도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그곳을 자주 갔던 이유들이 설명이 되어가는 걸 느꼈다.

나의 맛집 리스트를 선불리 정할 필요도 없고, 확신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그 집이 충분히 나를 끌리게 한다면, 그리고 그 이유들이 나쁘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게 결국은 '나의' 맛집이다.

여섯째날. 강아지

이영신 / **2.18 Day6** / 주제 : 강아지

우리집에는 올해로 10살이 된 강아지 째가 있다. 눈이 유난히 동그랗고 까매서 째를 볼 때면 눈을 유심히 쳐다보게 된다.

눈이 예쁜 우리집 강아지는 새끼 때부터 귀여움을 독차지 했다. 온가족이 시도때도 없이 쓰다듬어주었고 집에만 오면 모두가 째를 찾았다. 가족의 사랑을 듬뿍 주었다.

몇년 전, 쉬는날 째와 하루 종일 집에서 있었다. 평온한 오후, 내옆에서 쿨쿨 자는 이 생명체를 뻘뻘 바라보게 되었다. 나는 문득 이 까맣고 작은 눈동자 속에 어떤 세상을 담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집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도 없는 집을 지킨다. 창밖 새들도 째 보안관 덕분에 함부로 우리집을 구경할 수 없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가족들을 씩씩이 반긴다. 꼬리가 흔들다 날아갈 정도다.

나의 세상은 강아지 말고도 많았지만, 강아지의 세상은 가족 하나뿐이다.
이 사실을 알고난 뒤 지금까지 내가 주었던 것들은 내 위주의 사랑이었고
내 위주의 예쁨이란걸 깨달았다.

내가 이 작은 강아지를 위해 줄 수 있는 진짜 사랑이 뭘까 생각해봤다.
간단했다. 지금 당장 산책을 나가는 것! 그동안은 내 걸음에 강아지를
맞췄다면 내가 강아지의 걸음에 맞추어 주는 것.

우리집 막내 쭈쭈도 어느새 10살이 넘는 노견이 되었다. 할머니 쭈쭈가
원하는 사랑이 무엇일지 계속 생각해보고 그에 알맞는 사랑을 잘 다듬어
주어야겠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이 작은 강아지에게서 배운다.

김준현 / **2.18 Day 6** / 주제 : 강아지

어린왕자에서 길들여진다라는 개념을 배웠다. 지구에서 5000송이의
장미꽃과 어린왕자 별에서 있는 단 하나의 장미꽃에서 오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데 그것은 관계에서 오는 의미이고, 여우는 그것은
길들여진다고 말을 한다.

강아지도 마찬가지로. 지구에서 가장 많은 동물은 사람다움으로
가축화된 동물들인데, 개, 양, 닭, 소, 말, 고양이 정도가 있는데 특히
강아지와 고양이는 반려동물로 우리와 제일 관계를 깊게 맺는 동물들로
생각한다. 우리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길들이고, 길들임 당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다른말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어린왕자의 구절을 소개하며 글을 마치려한다.

'민약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환하게 밝아질거야. 모든 발자국
사이에서 너의 발자국 소리를 구분하겠지. 만약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굴 속으로 숨겠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음악소리처럼
들려서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거야'

하건우 / **2.19 Day 6** / 주제 : 강아지
[강아지처럼 용기낼 수 있다면]

누구는 사람을 믿는 게 어렵다고 한다. 누구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들키면 약자가 된다고 한다. 누구는 남들이 먼저 보여줘야, 자신도 열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 그들의 눈도 사람을 보고 '빛났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까, 답해줄까, 혹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전에 먼저 존재 자체를 느꼈다. 그리고 오롯한 자신의 마음으로 타오르는 불꽃이 있었다.

이렇게 사람에게 힘듦을 느낄 때, 집으로 돌아오니 자신을 조건없이 반겨주는 강아지에게 사람들은 큰 위로와 안정감, 사랑을 느낀다.

그렇다. 강아지란 존재의 힘은 '조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용기에 나온다. 자신이 함께 사는 사람에게 순수하게 그대로 달려가고 안기고, 떼쓰기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존재의 의미이지 않을까? 확박한 사람들은 집에 가서 강아지를 찾는다. 당신의 친구, 당신이 아는 누군가도 그럴 것이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면 알볼 것이라 생각지 마라. 착각이다. 강아지야말로 용기 있는 존재이며, 진정으로 마음을 움직이듯이,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강아지가 되어보자.

철들면서 겁을 먹는 거보다, 다치지 않은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보자.

유지은 / 키워드: 강아지, [매일매일 자상함을 보고 배우는중]

우리집에는 강아지 한마리가 살고 있다. 즉 산책, 씻기기, 약먹이기 등 돌봄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나는 자상함이란 무엇인지 막내동생을 통해 그 실체를 보고 배우는 중이다.

막내동생한테는 나랑 둘째한테는 없는 자상함 유전자가 물뽕된게 틀림없다. 막내는 강아지가 같이 침대에서 잘때, 강아지의 단잠을 깨우기 싫어서 화장실도 가지않고 침대에 계속 있다. 산책도 매일 시킨다.

외출복으로 갈아입히고, 발을 씻기는 과정에서 강아지를 참으로 조심조심 다룬다. 강아지가 수컷이라 표피염에 종종 걸리는데, 희석시킨 소독솜으로 고추를 닦이는 과정에서도 행여나 아프지않게 조심조심 천천히 행한다. 그리고 어둑해졌을 때 사람이 없으면 강아지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집에 빨리 오라고 독촉하는 일도 한다.

행동 하나라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다. 본인의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강아지를 배려한다. 강아지가 무엇을 잘 먹는지, 요새 밥 먹는양은 어떠한지, 걸음걸이는 괜찮은지를 섬세하게 살필줄 안다.

나는 막내동생 덕분에 돌봄이란 성별에 국한된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배려, 자상함, 섬세함과 닮아있다는 걸 배우는 중이다. 대체 애는 이런걸 언제 어디서 배운걸까? 알 수는 없지만 그 아이의 자상함이 주변에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당길 것이라고 믿는다.

02.18/달/[반려동물과 모성애]

암컷의 본능인 모성본능(또는 부성애)을 해결하는 방법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다.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미혼 남•여, 딩크족이 많아지고 방송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유튜브 반려동물 채널의 인기)

인간으로서 종의 번식을 대신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안타까우면서도, 본능(모성애)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명한 인간은 본능을 다스리거나 해결할 줄 알아야 한다.

이대현 / 2.18 / 주제어 : 강아지

강아지와 의 실제 추억, 경험이 없어서 강아지 하면 떠오르는 말로 글을 써야겠다. 강아지하면 떠오르는 말은 귀엽다, 충성스럽다. 이 두가지다. 인간 아기에겐 없는 충성스러움이 있다는게 차이점이다. 강아지가 충성스럽긴 하지만 기대치는 인간에 비할바가 못된다.

강아지를 키워본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으나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에 비해 더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키우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욕심을 가지지 않으려 해도 어느정도 생기기 마련이다.

강아지가 유독 충성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결국 지나친 기대치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다면 훨씬 나을것이다.

빵과자 / 0218 D6 / 강아지

[언제가 키우고 말거야]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강아지는 어른이 되어 그애의 사료값 정도는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몇 년부터 정말 키우고 싶었다. 유튜브 맹수꿈이, 재롱잔치, TV 동물농장, 세나개, 개는 훌륭하다 등 나는 이미 미래 견주로서 예습을 시작했고 올해 말에 독립 예정에다 친척중 의사도 있으니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올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나는 어떤 이쁜이를 만나게 될까?!

그런데 과연 나에게 올 강아지는 행복할까?! 나는 '일하기 위해 태어난 인간'이라는 친구의 농반진반의 모욕적인 별명처럼 일에 몰두하면 사생활은 잘 챙기지 못하는 실속없는 성향이다. 내가 세상의 전부인 강아지는 아마 자기 직전에 주인을 보고 자는 모습만을 볼 수 있겠지... 운동도 하지 않아서 일정이 있을 때 조금 걷는게 다이다. 누굴 챙기는 것도 잘하지 못하고 연애도 일처럼 접근해야 겨우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잘 생각나지 않는다.

내가 자격이 될까?! 물론 과거보다 워라벨에 대한 욕망이나 개인의 삶과 건강에 대한 집중도 등이 향상되는 등 꽤나 인간같아 지긴 했지만, 나에게 오는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정도인지는 미지수이다.

올해로 거의 10년째 고민중... 언제가 반드시 키우고

권경하 / 2.18 Day 6 / 주제: 반려동물

동물을 아주 안 길러본 건 아니다. 햄스터, 골든햄스터, 열대어, 토끼 지금은 고양이까지. 하지만 성인이 되어 온전히 내 힘으로 기렀다고 말할 수 있는 동물은 골든햄스터였던 “치치”가 유일했다.

내 힘으로 기렀다는 것의 의미는, 입양부터 집 꾸미기, 양육 및 관리 등 가히 내가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음이다. 시체처리만 내가 못했다.

아쉬움의 감정은 모든 헤어짐에 있어 떨쳐내기 가장 어려운 감정이 아니지 싶다. 소동물은 본래 면역이 약하다는 것도 치치와 헤어지고 나서야 알고, 그 만큼 청결관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헤어지고 나서야 알았다. 내가 미리 좀 알고 입양했다라면, 골든햄스터의 평균수명만큼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괜히 나라는 주인에게 와서 너무 아프다가 일찍 헤어진 것 같아 미안하고 스스로에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치치의 죽음은 점차 게을러졌던 주인의 베딩갈이 주기로 인해, 햄스터 제1질병인 취선염이 종양으로 퍼져 죽었던게 아닐까 추측된다. 이제는 헤어진지 4~5년정도 지난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그의 죽음의 원인이 나의 부주의라는 점은 떨쳐내기 어렵다. 아쉬운 감정을 떨쳐내고자 긍정회로를 돌려보지만, 그 경험으로 인해 식물하나 기르기 무서워 진 게 사실이다. 식물 또한 생명일 수 있는데, 나는 그것을 온전히 돌볼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책임감의 무게가 앞선다. 이제는 어머니가 왜 집에 동물을 들이지 않으려하는지 안다.

일곱째날. 봄

권경하 / 2.19 Day 7 / 주제: 봄

본질적으로 이도저도 아닌게 나에게 큰 매력을 끌지 못하는 계절이 간절기이다. 같은 이유로 언뜻보면 여름만치 아주 열정적인 계절은 아니지만, 자연의 순환으로 따지자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야 말로 가장 열정적인 계절이 아닌지 생각해본다.

언젠가 무기력했던 시기에 봄이 찾아왔었다. 문득 저 여린 잎의 생명력 보다는 못한 내 자신이 안타까웠고 그렇게 조금씩 그때의 무기력함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보통 새해 결심은 달력의 시작에 맞추어 1월에 시작하지만, 인체도 자연의 흐름에 따라 봄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했던 게 아닐까.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서도 사실 많은 편인 내가, 해보고 싶은게 있다면 봄의 시작에 맞추어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하며 설레는 요즘이다. 봄의 알림이 설레다는 건 아마 움츠렸던 몸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가 왔음에 대한 설레임인 것 같다.

하건우 / **2.19 Day 7** / 글감 : 봄

[어서와, **2023**년의 봄아]

겨울이 가고 있다. 혹은 봄이 오고 있다. 봄은 분명히 왔었는데, 또 다시 봄이라니.

함정이다. 봄이 또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 이번에 오는 봄은 내 인생에서 한 번도 찾아온 적 없는 계절이다. 1991~2022년의 봄은 내게 왔었지만, 2023년의 봄은 결코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고, 이번에 처음인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함정이 있다. 계절의 봄은 오겠지만, '내 마음과 정신에도 봄이 올 것인가?'를 놓치면 안 된다. 봄이 와도 마음이 춥다면, 아무리 봄이라든 겨울처럼 느끼는 게 사람이다. 겪어봐서 안다. 결국 봄을 봄답게 맞아들이는 것은 내 삶에 대한 사랑과 소중함, 그리고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 다시 봄도 아니고, 어찌다 봄도 아니고, 오고야 말 봄을 만드는 2023년의 단 하나밖의 없는 계절을 꿈꾼다.

빵과자 / **0219 D7** / 봄

[1230]

10대의 봄은 가정의 달 선물 같아서 빨리 풀러보고만 싶고,
20대의 봄은 개나리.진달래.민들레.벚꽃 같아서 영원히 아름다울 것만 같네.

30대의 봄은 비싸게 주고 산 잘 맞는 테일러드 자켓 같아서 오래 입고싶어 봄을 붙잡고 싶네.

40대의 봄은 입학식 같고
50대의 봄은 졸업식 같고
60대의 봄은 꽃샘추위 같을까?!

유지은 / **Day 7** / 키워드: 봄, [절정보다 과정을 담는 눈]

SNS 때문인지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인지 매년 봄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절정에 이른 벚꽃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는다. 아직 덜 피었거나
시들시들 해진 벚꽃 나무에는 눈길을 잘 주지 않는다.

나는 언젠가부터 활짝 핀 꽃들보다는 이제 막 봉우리를 피우기 시작한
나무와 꽃들을 보는데 재미를 붙였다. 주로 내 생활반경에 있는 꽃들을
대상으로 매일 구경하며, 하루만큼 더 피었구나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다. 다음번에도 이렇게 과정이 빛나고 찬란한 존재를 내 눈에 담고
싶어진다.

꽃에게 그러하듯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한다면 더 좋겠다고
다짐한다. 절정에 이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과정에
있는 사람의 매일매일에 눈길을 주자. 그래서 지금보다 더 밝고 깊은
눈을 가져봐야지! 썩은 동태눈알 방지에도 탁월한 방법일 것이다.

02.19 / 달 / [봄비]

뿌영게 앞이 안보일만큼 운무가 가득한 날의 산책

내 미래가 어두워
앞이 안보일까 두려워
눈앞에 잘 보이는 것조차도 파헤치듯 살아냈다.

오늘
뿌영게 낀 운무 속을 산책하다 보니
앞이 잘 안 보인다.

마침내, 편안한 안정을 얻었다.

: 봄에 내리는 비는 미세먼지를 씻어주고, 자연에 생명을 준다. 꿈꿨던 호수가 녹고, 나뭇가지에 새싹이 움튼다. 봄비는 자연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안정을 준다.

이영신 / 2.19 Day7 / 주제 : 봄

[연둣빛 찬란]

봄은 미세먼지만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계절이다. 동물들은 긴 잠에서 깨어나고 식물들은 봄의 소식을 듣고 온마음을 다해 싹을 틔운다. 이 찬란한 과정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봄을 좋아한다.



4월이 되고 벚꽃이 지면 연두의 세상이 찾아온다. 나는 이 계절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 숲과 산으로 간다. 지난 봄에는 지리산 둘레길을 다녀왔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작년 내내 그 기억을 때어 먹었다.

2022년 4월 23일 미세먼지 좋음 ☀️
지리산 둘레길 3코스 🏔️ 총 길이 20km


봄은 찬란하다
햇빛은 넉넉하고
살랑살랑 봄바람이 분다.
걸을 때마다 달콤한 아카시아 향기가 내 코를 스친다.
아스팔트 길에서 흙길로, 흙길에서 오솔길로, 오솔길에서 산길로
계속되는 오르막길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 그때 마침 시원한 바람이 분다.
벌 잡아먹는 개미, 맨질한 쇠똥구리까지 길에서 다양한 곤충을 만났다.

길에서 연보라빛 라일락 나무를 만났다. 라일락꽃 향기를 맡으니 달달한 사탕을 머금은 것 같다.

나무들의 연두빛은 각각 색깔이 다르다. 각기 다른 연두로 잎을 피어내고 있다. 완전한 봄 생명이 가득 깃들었다.

한여름에 느끼기 어려운 서늘한 숲이 나타난다.

넷물에는 송사리가 헤엄치고 윤슬이 찰랑인다.

아... 완전 행복하다...! 

매해 온몸으로 이 찬란함을 느끼고 싶다. 올해 봄에는 어디를 갈까.

안소라/ 2.19 day7/ 봄

[봄이 주는 시작의 기회]

추위를 많이 타는 나는, 겨울에는 바깥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다. 추위에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캠핑도 서핑도 가기 망설여지고 좋아하는 산책도 가끔만 나가게 된다.

그래서 봄은 하고 싶은 일로 넘쳐나는 계절이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겨우내 축적한 에너지를 발산한다. 꽃구경도 가야 하고 따뜻해지는 날씨를 온몸으로 반긴다. 뭐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봄 특유의 분위기도 내 마음을 한껏 들뜨게 해준다. 올해 봄에도 역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겠지?

어김없이 돌아오는 따듯한 계절에, 항상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는다.

Epilogue

마지막 주제 ‘봄’을 보니 지금은 어느덧 벌써 봄이 와있네요.

다들 봄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고 계신가요?

돌아오지 않을 파릇파릇한 계절 충만하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챌린지 참여자 여러분들의 글을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즌2에서 찾아뵐 수 있기를 😊